

새 책

▶6만 시간(박현숙 지음)=열세 살부터 열아홉까지. 누구나 어릴적 '6만 시간'의 청소년기를 보낸다.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6만 시간의 중요성을 보물찾기 하듯 이곳저곳에 숨겼다. 겉으로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영준', 초등학교 때부터 맞기만 하던 '서일'과 그런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짜구 형'. 이들을 둘러싼 대화와 사건이 '6만 시간'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된다. 특별한 서재. 1만2300원.



▶그곳에 내가 있었다(일하는여성 아카데미 지음)=언제나 어디에나 늘 있었던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녀들이 함께 모여 써내려간 기록이 대한민국의 굵직한 '노동운동사'가 됐다. 이 책을 쓴 여성노동활동가 10명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됐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큰 사회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각자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운동가로서 삶이 전환되는 같은 계기를 맞았다는 것을. 이는 1970-1980년 남성 사업장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소외되고 들리지 않던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프북스. 1만3000원.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이항규 지음)=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며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던 2018년 봄, 저자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 여정에서 참전 군인들이 남긴 오래된 사진과 사연, 부산 유엔군묘지에 묻힌 스무 살 청년의 매장기록, 전쟁 중 피난길에 나섰던 아버지가 당시에 남긴 일기를 살폈다. 그리고 곁섰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다시 써내려가기로. 어떻게 바뀐 전쟁의 기억을 들여다보며 그가 건네는 건 분단과 갈등의 역사가 평화로 가는 길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다. 창비. 1만5000원.



▶아이 시원해!(김경득 지음)=잠자고 일어난 병아리부터 뜨거운 햇살 아래 목이 마른 토끼, 매운 것을 먹은 공룡까지. 목이 마른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로 '시원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참신하게 그려냈다. 그림책 끝에는 어린 아이들의 시선을 잡는 '귀여운 반전'이 펼쳐진다. 화장실로 달려간 동물 친구들이 숨어 있는 플랩 페이지를 열면,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질지도 모른다. 길벗어린이. 1만2000원.



▶내 똥으로 뭐 할까?(제인 커츠 지음, 백현주 옮김)=아이들이 가장 호기심을 느끼는 주제 '똥'. 그 얘기를 연결하는 방식이 재밌다. '판다는 왜 초록색 똥을 놓까'라는 질문부터 똥으로 대화를 나누는 어떤 동물의 숨은 이야기까지. 동물의 똥이 가진 비밀을 살살이 담아 선명한 색감의 그림으로 흥미 있게 풀어냈다. 재미있는 똥을 실컷 구경하고 똥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까지 만날 수 있다. 그레이브룩스. 1만20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성공한 식당의 비밀, '통찰력'에 있다

## 김현수의 '줄 서서 먹는 식당의 비밀'

외식 컨설턴트가 전하는 불황 속에도 살아남는 법

다 같은 굿스잡이 줄지어는 거리에 손님이 몰리는 곳은 정해져 있다. 백반, 김치찌개, 갈비를 똑같이 팔아도 손님들이 기다려 먹는 식당은 몇 안 된다. 그걸 지켜보는 식당 주인은 속이 탄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어서다. 하지만 손님들도 다 안다. '손맛'도 맞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홍보가 안 돼서 그래." 입소문만 타면 '대박 사장님'이 될 수 있을 것만 같다. 저마다 SNS 등 온라인 세상에 '홍보 전단'을 뿌리는 데 열을 올리는 이유다. 저자는 꼬집는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2005년 외식 전문지를 창간하고 외식 전문 컨설턴트 겸 외식 콘셉트 기획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가 15년간 여러 식당의 경영개선에 참여하며 얻은 결과다. 저자는 '통찰력'만 있으면 불황에도 끄떡없다고 얘기한다. 불황에도 줄 서서 먹는 식당은 분명히 있으니까. 저자는 통찰력을 키우는 법을 식당 안에서 찾으라고 조언한다. 식당의 현관, 화장실, 주방, 식당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 얼굴 등에서 식당 운영의 통찰력을 찾을 수 있다. "식당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자신의 식당이 과연 손님들이 오고 싶어 할 만한 식당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 책은 맛은 물론 가게나 메뉴 이름부터 구성까지 음식 맛 다음으로 놓일 법한 얘기도 다룬다. '성공 식당 가꾸기'에 필요한 팁이다. 통찰력으로 성공을 일군 식당의 사례도 실었다. 절망 끝에 수도권 최고의 삼겹살 브랜드를 만든 식당부터 위기를 딛고 장안

그렇다면 '줄 서서 먹는 식당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저자는 인사이드, '통찰력'에 주목한다.



최고의 평양식 불고기집을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창업 전에 다녀와야 할 식당'을 추천했다. 식당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 통찰력이 엿보인다. "외식업은 단순히 자본금만 넉넉하다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식당을 열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이 많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진정성이 아닐까." 저자가 줄곧 얘기하던 통찰력도 어쩌면 맛있는 음식을 좋은 서비스와 합리적 가격 등에 선보이겠다는 진정성, 이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김현수 지음. 이상미디어. 1만6800원. 김지은기자

# 국경 넘은 미술 여행에서 세상을 배웠다

## 씨위드 발행인 이나연의 '미술여행'

그가 일 년의 절반을 집이 아닌 곳에서 보낸 동력은 대개 미술이었다. 스스로 선택해 떠난 길이었지만 출장처럼 의무감을 갖고 미술관, 갤러리, 작가 스튜디오 등을 바지런히 찾아다녔다. 혼자서 블로그에 짤막한 사진과 소회를 남겨 그 여정을 담아냈고 미술전문지와 패션지, 한라일보와 같은 일간지에도 그 이야기를 풀어냈다.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현대미술에 관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글로벌 문화예술잡지 '씨위드' 발행인 이나연씨가 미술이 있는 곳으로 떠난 여행과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공항에서 출국해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과정이 연상되는 편집 디자인으로 엮은 '미술여행-지금 국경을 넘어야 할 특별한 이유'다. 저자가 앞서 펴낸 '뉴욕 생활 미술 유행기' 등이 그곳에 거주하며

보고 느꼈던 걸 적었다면 이번에는 뉴욕을 벗어나 좀 더 광범위한 작품에 얽힌 체험을 기술해놓았다. 미술에 대한 최신 소식까지 담겨 있어 생소한 작가나 장소도 독자들이 좀 더 가깝게 여길 수 있도록 했다. 은빛 표지의 '미술 여행'이 달은 곳은 대서양 유럽에서 태평양을 넘어 미국까지 걸쳐 있다. 베니스, 마드리드, 파리, 런던같은 유명한 도시에서 윈스터, 마이애미처럼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도시까지 미술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연결됐다. 파리 팔레트도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베니스비엔날레, 뉴욕 모마, 마이애미 엑소더스까지 그 현장이 생생하고 미술의 거장인 피카소, 페리 포핀스의 주인공 비비안 마이어,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끈 데이비드 살리 등 작가에 얽힌 사연도 만날 수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들, 한국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더해졌다. 지난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웠다는 저자의 다음 미술 여행지는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햇수로 3년 동안 이 책을 제작했는데 유럽과 미국만으로 이미 분량이 채워져 아시아 지역까지 채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고지도에 표시된 제주 옛 지명에서 이름을 딴 펄파트 프레스에서 나왔다. 1만8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이 책 김준의 '섬문화 답사기'



'섬문화 답사기' 제주편에 실린 마라도 얘기개 활랑당.

## "육지와 닮아가는 제주다움 속상"



“섬은 섬의 자연과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 이것이 섬살이 자양분이다. 이를 지켜내지 않으면 문화다양성이 거세되고 쓰레기로 남아 섬을 오염시킨다.” 도시도, 농촌도 정체성이 사라진 채로 뿌리를 알 수 없는 공간과 내 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시절에 그

가 섬으로 떠나는 이유다. 섬을 걷고 그곳에 사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 삶을 기록하는 일은 생태와 문화 속에 얻어 낸 지혜를 씨앗에 담아두려는 뜻이 있다. 그 자루에 담긴 씨앗을 농부가 밭에 뿌려 열매를 거두듯 누군가는 시로, 누군가는 소설로 그려내리라. 한국 3300여 개 섬 가운데 460여 개 유인도를 20년에 걸쳐 문화다양성 지켜갈 그 섬들 김준씨. '한국 섬총서' 프로젝트로 여수·고흥, 신안, 완도편을 냈던 그가 네 번째 '섬문화 답사기'로 진도·제주편을 묶었다.

그의 섬 답사기에는 고독과 고립의 공간에서 사나운 바다, 거친 바람과 온몸으로 맞서며 미역줄기처럼 질기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진도권에 있는 섬들과 제주 본섬, 그에 딸린 9개 섬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여자들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질을 배웠다. 보리밭보다 갯밭에서 얻는 소득이 더 많았다. 물로 시집을 갔다가 가파도 바닷만한 벌이를 찾기 어려워 섬으로 돌아온 어머니도 있었다.”

그의 제주 여정은 그 섬 가파도에서 출발해 우도, 마라도, 비양도, 차귀도, 상주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등으로 이어진다. 본섬에서는 제주를 바라볼 때 꼭 생각했으면 하는 것들로 한라산, 송당분향당, 꽃자왈, 해녀, 등대와 도대불, 탐라국립춘궁 등을 추려 담았다. 일반 현황, 여행 정보 등은 말미에 실었다. 저자는 그 걸음 끝에 “자꾸 제주다움이 육지와 비슷해지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털어놓는다.

발로 쓴 보고서이지만 하필 표착지를 가파도로 적어놓는 등 더러 맞지 않은 대목이 보인다. 1980년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에 하멜 표착 기념비가 세워졌지만 최근 표착지 논란이 일며 민간 단체와 마을회에서 대정읍 신도리에 위령비를 설치한 일이 있다. 보뉴스. 2만8000원. 전선희기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흥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